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 보도

8월 20일 오후 전선중서부지역에서는 남조선피뢰군부호전광들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피뢰군부호전광들은 아군이 남측으로 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는 의지도 않는 구실을 내대고 아군민경초소들을 목표로 3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분별없는 망동을 부리었다.

그중 6발의 포탄은 아군 542, 543민경초소부근에, 15발의 포탄은 아군 250, 251민경초소부근에 떨어졌다.

이번 포사격도발에 의한 아군의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신성한 영토, 조국보위초소에 대한 무지막지한 포사격은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사태의 엄중성은 피뢰군부자체가 아직까지 아군포병의 발사원점도, 자기측 지역에 있어야 할 포탄의 낙탄지점도 확인하지 못하고 아군이 발사하였다는 포탄이 교사포탄인지, 소총탄인지, 로켓탄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군사적도발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는데 있다.

어제는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전 전선에서 대북심리전방송을 제개하고 오늘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우리측 지역에 술한 포탄을 쏘아대고있는것이 다음아닌 피뢰군부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도발행위이다.

조선인민군 사령부와 관련하여 20일 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히 소집된다.

지금 우리는 남조선피뢰군부방위가 48시간안으로 대북심리전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수단들을 전면철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행동으로 넘어간다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최후통첩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무모한 도발행위는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남조선피뢰군부호전광들은 격노한 아군전선련합부대 장병들의 보복열기를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주제 104(2015)년 8월 20일 평양

선군은 승리, 우리의 총대는 자비를 모른다

뜻깊은 선군절을 마중해가는 우리 조국에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전선중서부지역에서 감행된 남조선피뢰군부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

조국보위초소들을 지켜선 전선련합부대 장병들만이 아니라 천만의 군민모두가 적노하였다.

불은 불로써 다스리고 무지막지한 호전광들은 무지막지한 불세례로 정신 차리게 해야 한다!

복수의 불바람을 만장악한 백두산총대가 대답할 때가 도래하였다.

그렇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전체 군민의 선군의지속에 진정한 평화와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

지나온 나날에 그러하였듯이 오늘도 매일도 승리는 선군으로 무적의 힘을 키워는 우리에게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8월 25일은 4월 25일과 더불어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말치는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과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오른 우리 조국의 위상은 바로 이날과 잇닿아있습니다.》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정령 이날을 때어놓고는 못할수 없는것이 위대한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력사이다. 승리와 영광, 존엄과 자부심으로 가득찬 우리의 어제와 오늘만이 아니라 더욱 위창찬란한 래일을 8월의 이 뜻깊은 명절이다

말하여주고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넘겨받으시던 때의 일을 회고하시면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늘 자신에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잘해나가자면 당과 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사업과 군대사업에 힘을 쏟도록 하시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오래전부터 당사업과 군대사업을 맡아보면서 거기에 큰 힘을 넣어 당과 군대를 불패의 혁명대로 강화발전시켜왔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주제 49(1960)년 8월 25일 군위 서울 유정수제 105명크사단을 현지도하는것으로부터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오고있다고 강조하시었다.

보통 사람들은 정치가, 국가지도자들의 첫 정치활동을 깊은 관심속에 주시하곤 한다.

명도자의 첫 정치활동을 통하여 그의 정치적절단과 리상을 가늠해볼수 있고 차후 정치활동의 방향을 확증할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행하신 인민군부대에 대한 현지도는 바로 그이께서 지난 기간에 간직하신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신념과 선군의지의 발현이었으며 선군혁명명도의

시작을 알리는 력사의 선언이었다.

인민군대가 자기 수명, 자기 당을 목숨으로 사수할데 대한 구호를 총창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 전투정치훈련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여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질데 대한 사상, 우리 식의 국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사상, 인민군대가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데 대한 사상...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에 주신 가르치심은 곧 그이의 혁명무력건설구상이 집대성된것으로서 우리 당과 국가가 군건설, 국방력건설에서 일관하게 전지해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되었다. 하지만 그때 세계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혁명이 승승장구하자면 선군을 해야 한다는것,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것을 아직 모르고있었다. 바로 이날과 더불어 사회주의정치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정치방식이 탄생하고 선군절이라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명절을 탄생시키리라는것을 그때 누구도 몰랐다.

지난 50여년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받들어오는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이께서 선택하신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에 대하여 실지체험으로 절감하였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는 원수들의 극도로 달한 군사적위협과 경제붕괴를 맞받아 짓부시고 자주적살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대결전의 나날이었다. 바로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뜻깊은 결론을 무엇이었는가.

선군이야말로 최대의 애국이라는것 그리고 실사 그 길에 어떤 희생이 따르다 해도 굴함없이 헤쳐 가이어 최후승리를 안아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였다.

선군은 곧 자주이고 존엄이며 애국, 애족이다!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의 승리가 있다!

이런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룩한 자욕을 다박술초소에 찍으시어 선군정치가 조선의 후손만대의 전략적선언을 선언하시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사생결단의 전진결정에 계시었다.

하나 그때엔 인민이 다는 알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 헤쳐오신 선군의 길이 얼마나 시련에 찬 길인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인민이 고통하고 경제적인난이 중첩되지만 반드시 이길로 가야 승리의 종착점에 도달할수 있다는것을 그때 벌써 확신하고 계시었다.

이 나라의 무수한 길들마다에, 굽이 굽이 뻗어간 령들마다에 어버이장군님의 선군의 자욕이 적혀있지 않은 곳 있는가.

이른 새벽에도, 길고길은 밤에도, 눈비내려도, 찬바람 시정없이 몰아쳐와도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들을 찾아야 전자를 달리고 또 달려신 날이었다. 바로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하나로 이어놓으면 그것은 그대로 그이의 선군혁명명도가 된다.

1990년대 후반기는 자신께서 제일 잊을수 없는 나날이었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오늘도 들려온다.

하루이름도 아니고 한두개월도 아닌 기나긴 세월 야전식사, 야전리발, 야전술옷과 같은 전설같은 혁명일화들을 남기시며 휴식도 승용차에서의 폭장, 식사도 한뼘이 제기밥으로 대신하신 위대한 장군님.

언제 어떤 불의의 정황에 부닥칠지 가늠할수 없는 판문점초소까지 나가시어 군인들에게 자주적근위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땀과 밤에도 땀과 새벽에도 땀이신 철령의 굽이 굽이, 미끄러지는 차를 어깨로 미시며 한치한치 오르신 오성산의 칼벼랑길, 자그마한 폐수정도로 길길이 솟구치는 날파도를 헤치며 병사들을 찾으시었던 초도의 배길...

조국의 고지한 고지들, 령길이란 령길들에 이렇듯 무수한 자욕을 새기시었으니 우리 장군님 겪으신 로고를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삼복철강행군, 눈보라강행군과 같은 시대어들도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

우리의 국력,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고있는 세기적번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헤쳐오신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온 세계앞에 실증하시었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오늘도 이 땅우에 높이 울리고있는 이 노래는 55년전 8월의 뜻깊은 그 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선군으로 우리 조국을 이끄시어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다.

...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으며 우리의 총창우에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또 한번의 백두산현충원위인인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무력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있다.

적들의 그 어떤 무분별한 도발도 과감히 짓부시고 자비를 모르는 보복타격으로 원수들의 아성을 밀부리 채 들어내고야말 무적필승의 기상,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선군조선의 힘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시여! 명명만 내리시라! 단숨에 달려가 무분별한 도발자, 평화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남김없이 소탕하리라.

본사기자 백영미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으로 만장악된 백두산혁명강군은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 것이다.